

건축문화 **사랑**

Vol.005 10. April 2010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0.04

005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작품소개

전주대학교 EMS생활 문화관, 장수 향누리전당, 진통의 현대화를 통한 한옥마을 문화체험관 계획안

대학소개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NEWS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상호상건축사 선임

시론

우리의 자태(姿態) 속 건
 빗마루의 추억_김강수

전통건축

21세기 새로운 한옥의 가능성_김지민

건축과 도시

새로운 도시민들끼리의 광주_이영규

건축과 조경

건축공간과의 식재설계_조동범

인터뷰

향정지원국 행복마을과, 신명수
 진라남도정 세상 만들어가는 박재홍건축사



우리의 자태(姿態)



송 건 건축사
대호 건축사사무소 대표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 눈에 앉지 마라, 우리 밭에 앉지 마라, 이렛넷 새는 아래로 가고 윗넷 새는 위로 가고, 우리 눈에 앉지 마라 우리 밭에 앉지 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손톱 발톱 다 닳는다. 위여 위여,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 눈에 앉지 마라.』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전주고부 녹두새야, 윗 눈에는 차나락 심고 이렛 넷에 메나라 심어, 울 오래비 장가 갈 때 찰떡치고 메떡 칠칠, 네가 왜 다 까먹느냐 네가 왜 다 까먹느냐. 위여 위여,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 눈에 앉지 마라.』

이 민요를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 정서를 완벽하게 표출할 수 있을까? C.Chevallier가 편곡하여 지휘는 금난새, 조수미가 불렀다. 서양 음악으로 우리 정서를 그려낸 작품으로 세계적 기량보다, 한국인 연주자이기 때문에 깊은 속 우리 마음을 휘잡는 것이지, 서양의 성악가가 우리를 울리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이타미·준(伊丹潤)의 '온양미술관'을 떠올린다. 한국계 일본건축가인 그만이 빚어낸 기법에서 나는 강한 우리의 체취(體臭)를 느낀다. 전통건축이 아니어도 음악에서처럼 우리 것을 강하게 느낀다.

중국에서라면, 나는 우선 중국계 미국인 Ieoh Ming Pei가 설계한 홍콩의 'Bank of China Tower(중국은행)'와 Herzog & de Meuron의 '북경국립경기장(The National Stadium Beijing)'을 생각한다. Bank of China Tower, 솟아 있는 은색의 검(劍)같은 모습, 태양빛 변화를 모아 빛을 내고, 어느 순간 빛 속으로 사라지는가하면, 한 순간 엷은 흑색이 깃든 강한 형태로 Victoria 산록에 우뚝 서 있는 이 70층 건물은 여러 가치를 시사하고 있다. 1990년 3월 건물 완성직후부터 홍콩의 건물은 50층까지 제한되므로 이 건물은 홍콩의 관(冠)으로, 먼 장래까지 Skyline의 지배자가 되어 거대한 간결함으로 힘을 상징하게 되었다. 건축주는 비범한 특성을 요구했고,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적 건물이 되었다. 흔히 중국하면 죽(竹)의 장막을 연상해 왔는데, 2008 북경국립경기장은 구조의 틀을 대(竹)로 엮는 형태로, 정체성이 매우 강한 건물이 되었다. 이 두 경우에서 중국의 상징성이 현저하게 표현 되었다고 말한다면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두바이의 초고층 건물을 보자. 새롭고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메가 스트러쉴러를 감싸는 동일한 형태미 추구 수법들로 귀결되고 있다. 이것을 기교(技巧)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결국은 국제화라고 말해야 하는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가관 당선작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제1의 자연에서 인공 환경적인 제2의 자연을 넘어 반자연적인 요소 발생을 억제하는 제3의 자연을 컨셉으로 일렁이는 큰 물결을 형상화 했다. "저게 건물이 될까"하고 가우뚱하지만 어떤 형태의 표출도 가능하게 된 오늘의 건설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형태미의 추구하고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가들의 작품 활동은 이른바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 건축물이 강한 정체성을 느끼게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 치더라도, 세계화 속에서 항동성이나 민족성으로부터의 탈피는 불가피하지만, 통시성(通時性)과 문화의 동시성(同時性)을 본다면 건축가는 불가항력적인 틀 속에서 또 고유한 것을 찾아야 한다.

친환경건축물을 설계하고, 목조건축의 영역을 발전시키는 등, 이 지역 건축가들이 유행에 구속되지 않고 현대적 전통미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있기에 광주를 자랑한다. 메가스트러쉴러와 과도한 외부 형태미의 추구만으로 치우친 두바이가 이목을 끌고 있지만 여기 또한 민주화의 역사유산을 간직한 채 세계의 무대로 성장해 나갈 것이니까.

뒷마루의 추억



김강수 건축사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초가집이 슬레이트 집으로 바뀐 것은 아마 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즈음 이었다. 새마을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해에 우리 집 아래채가 뜯겨 맨 윗 마당 구석으로 옮겨졌다. 마을길이 넓어지는 바람에 쇠마구간과 돼지우리, 그 위 측간으로 구성된 2층집(?)과 돌담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싸리문이 양철대문으로 바뀌는 사이 어린이들의 좁은 골목길 놀이터는 시멘트 길로 바뀌어 구슬치기 구멍이 사라져 버렸다.

길이 넓어짐과 동시에 좁아진 마당은 길옆 담과 우리 집의 앞마루가 더욱 가까워졌다. 이로 인해 지나가는 동네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집을 넘겨 보는 시야가 확보 되었다. 우리 식구는 마루에 앉아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먹 거리가 있노라면 담 너머로 보는 여러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앞마루의 식사는 차츰 방으로 옮겨졌고, 더운 날이면 뒷마루로 옮겨 뒷바람의 시원함과 함께 은밀한 밥상이 차려지곤 하였다.

뒷마루는 앞마루에 비하여 좁은 편이었다. 앞마루는 겸상을 충분히 하고도 끼워 앉으면 세 명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곳은 작은 폭에 길어도 여의치 않아 밥상을 차리면 우리식구의 일부만 앉고 나머지는 방으로 들어가야 했다. 아홉 식구가 모두 앉기에는 턱없이 작은 곳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나는 마루에 앉는 것을 택하였다.

뒷마루 앞 뒷밭에는, 장독대와 크고 작은 감나무, 무화과나무 몇 그루가 호박넝쿨과 함께 어우러져 여간 좋은 그림이 아니었다. 더더욱 담장을 넘어 온 옆집의 감꽃, 호박꽃과 더불어 나비와 벌, 매미소리가 앙상블이 되어 거기로 안내하는 특별함이 있었다.

뒷마루는 어찌 보면 허드레 공간이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들치기 심상이었는데 이 또한 어린 시절 우리들의 좋은 놀이를 제공하였다. 마루 끝에 서서 손을 내밀어 간질 거리는 빗물을 받아 동생들에게 뿌리는 장난을 하곤 하였다.

뒷마루 위 시렁은 나무 두 개를 걸쳐 놓은 선반으로 주로 어머니가 애용하셨다. 보리쌀을 삶아 광주리에 담고 시렁에 걸쳐 놓으면 더운 날씨에도 쉬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었다. 어떤 때에는 광주리에 담긴 보리밥을 물에 말아 뒷밭에 쫓고추를 따서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시장이 반찬이라고 얼마나 맛있던지... 멀리라도 걸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였다.

그렇게 살던 시절에서 요즘은 아파트라는 곳에 살게 되었다. 아마도 아파트에서의 뒷마루는 뒷 발코니일지 싶다. 그러나 이 발코니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는 모양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실확장형'이라 돈을 좀 더 주고 들어 올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거실외의 발코니는 그대로 남아 있어 그런대로 지낼만한데 비가 오면 빗물이 집으로 들이치는 바람에 창문단속을 잘해야 한다. 밖의 공간이 좁으니 거실 창 쪽 몇 개의 나무화분에서 잎사귀가 떨어져 매일 청소해야 하고, 겨울의 햇살이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이중창을 설치해도 외부공기와 맞닿으니 추울 수밖에... 밖과 안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를 넓게 이용하는 대신 잃은 것도 생기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다.

참 이상한 것은 창문을 설치하고 일반 거실의 장판지를 깔더라도 거실은 실내이고 발코니는 실외인 느낌이 든다. 마당과 마루, 그리고 안방을 잇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 서일까. 아니면 신발을 신고 밟는 습관때문일까. 어찌 되었든 답답한 고층의 거실에서 살아보니 넓히는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베란다는 식어도 다 쓰고 없애기 보다는 조금씩 남겨 두었으면 한다. 굳이 소방, 피난을 핑계삼는 형식적 공간이 아니라 담배도 피우고 빨래도 널고, 화분 한두 개 놓고, 이왕이면 두세 명은 앉을 수 있는 곳으로 남겨자. 내가 큰소리치면 아이들이 숨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오늘도 이 작은 공간, 이 발코니에서 담배 한 대를 물고서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본다. 옛날 시골집의 뒷마루에서 배 깔고 읽었던 우주소년 아톰은 실제로 있었을까 하면서...






(주)이에스엔지니어링

건축, 토목(전남 15-0277호)
주택건설(전남주택 2005-0027호)

(주)이에스산업개발

조경식재(광주동구 2008-16-04호)
시설물유지업(광주광산 2010-29-03호)

대표이사/건축사 김 정 일

광주광역시 광안구 선암동 54-7 E.S B/D
TEL: 062-236-2744 FAX: 062-236-2844

강변마을의 노래와 합성

- 글 쓰는 차례 -

1. 빛고을의 아침을 깨우는 언덕 양림산(2010년 2월호에 게재)
2. 강변마을의 노래와 합성
3. 언덕을 걷는 김복과 고삼길의 속살

글/사진 송인동 교수
호신대학교 역사문화자원본부장



1905년의 광주천 (광주양림교회 90년사, 2004)

양림(楊林)은 강을 낀 벼들 숲 마을이었다. 무등산 허리에서 솟아난 두 샘물이 원지교 근처에서 만나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고 굽이치고 사행천을 이루며 너른 유역을 만든 곳이 양림 마을 부근이었다.

1904년 12월 25일 오전 11시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양림산 언덕의 배유지 선교사 사택에서 처음 노래한 크리스마스 찬송 소리는 이후 양림리가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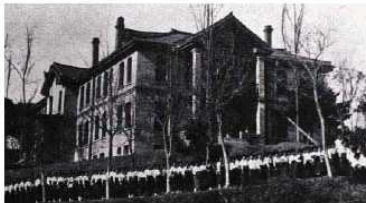
근대 음악의 발흥지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양림산 미국 남장교 신교부의 아이들도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나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는 노래를 한국 어린이들과 같이 부르며 자라났지만 새로운 서양 근대음악과 축음기,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각종 관악기 등 새로운 악기들을 접한 이 땅의 젊은 영혼들은 유감없이 그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광주 최초의 독창회와 오페라와 악단 등이 양림리에서 시작되었다. 양림리 교회, 송일학교, 수피아학교, 이일학교, 배영학교, 각종 야학, 오기원기념각 연주회 등은 나라 잃은 젊은이들에게 성악, 기악, 합창, 광주 전남지역 순회연주 등 다양한 음악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다.

광주 근대 교육과 문화의 통로이던 양림리에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 인촌 김성수 등을 비롯 근대 학문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꾸준히 찾아들었다. 근대 정신과 독립 정신을 함양하는 산실로서 수피아와 송일은 오기원기념각을 올리던



1904년 크리스마스에 첫 찬송이 불려오던 배유지 선교사 인사사택 (광주양림교회100년사, 2004)

송일 최병준 선생의 애국 연설을 비롯, 수피아의 항일 행사인 열세 집 연극과 반일회 행사, 수피아의 백정단 사건, 송일 출신 김현승을 비롯한 청년들이 연루된 신사참배 반대 투쟁 사건 등등 청소년들에게 애국적인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하였다. 양림리 교회 교인들이었던 최홍중, 남궁혁, 김필재, 김마리아, 김함라, 서정희, 최병준, 김강, 김철 등의 독립운동과 각종 사회운동 또한 그 뿌리가 양림산 언덕에서 비롯된다.



1930년대 수피아학생들이 양림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 (광주양림교회90년사, 1994)

독립정신과 근대정신이 무르익고 있던 양림리의 풍부한 토양으로 인해 이곳은 1919년 만세의거의 태동지이자 선봉이 된다. 광주의 3·1만세운동은 지역의 개화된 근대 정신과 일본에서 도교 2.8독립선언서를 숨겨 들어온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여사(한 때 양림리 거주), 정광호(양림리 출신) 등의 밀사,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파송된 김구식(김마리아의 고모부)이 국내의 행동도 필요하다고 역설, 국내로 비밀리에 파견한 그 부인 김순애와 동서 서병호(김마리아의 고모 김구례의 남편) 등의 밀사를 통하여 어느 지역보다 독립만세운동 기운이 빨리 무르익어 준비도 일찍 진행되고 있었으나 서울보다 먼저 거사할 수는 없다 하여 최홍중, 김철 등 주동 인물들이 서울을 살피러 올라갔다가 1919년 3월 1일 최홍중이 서울의 만세시위 중에 체포됨으로써 3월 1일부터 그 첫 희생자를 낳았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건물로 남게 된 광주양림교회 야경

최홍중이 체포되자 차질을 빚은 광주의 만세운동은 김철을 중심으로 양림리의 남궁혁(김마리아의 언니 김함라의 남편) 가옥에서 교인들과 비밀독서모임회원들이 모여 거사를 계획, 3월 10일 마침내 양림리에서 출발한 수피아, 송일 학생들의 대열을 필두로 만세물결이 옛적에 의병 처형장이기도 하였던 광주 작은장터를 휩쓸고 서문통과 법원 앞을 지나 일제 경찰서까지 이르렀다. 장터의 소란과 흥정 소리는 만세의 소리로 바뀌었고 심지어 친일



수피아의 반일회 모습 (수피아100년사, 2005)

파 인사까지 당당히 대한독립만세를 따라 부를 만큼 도도한 행진이었다. '아 2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격문을 뿌리며 태극기를 흔들던 수피아 여학생 윤형숙의 한 팔이 일본도에 무참히 잘려 나가는 등 유혈진압 끝에 100여명이 체포되고 교회당은 물수되었다.

한편 양림산의 한켠에는 독립운동가 최상현이 1920년 무등산의 절경과 마주한 양림산 경사지를 이용, 정면 8칸, 측면 4칸 팔작지붕의 큰 한옥으로 건축한 고택이 있다. 그는 이 집에 다락을 배치, 독립운동가들을 숨겼다고 하며 독립운동가 자원과 빈민구제에도 힘썼다고 한다. 부친 최명구는 구시청 부근에 흥학관을 지어 신간회 등 여러 단체들이 활용, 광주 학생독립운동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상현 가옥은 1968년 최승효가 인수하여 현재 '최승효가옥'(광주광역시 지정 민속자료 제2호)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3.1만세운동재현행사의 만세행진

최상현 가옥(현 최승효가옥)의 원편 능선 끝, 곧 지금은 물이 된 양파정(楊坡亭) 언덕의 아래쪽과 학강초등학교 부근 까지도 강의 유역이었고 물길은 여울과 소를 이루며 강변마을 양림리를 굽이쳐 돌아 영산강을 향해 달려갔다. 고려말 묵은 이색이 '석서정기'에 명승으로 묘사한 그 누정과 굽이치던 강줄기는 사라지고 '양림천'은 이제 학강초등학교 교가에 남아 있다. 양파정은 1914년 양파정낙교가 창건, 1932년 중건한 누정으로 산수를 노래한 당시의 시인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이곳은 양림에서 태어나 자이크프스키의 손꼽히는 제자로서 러시아 음악계에 우뚝 선 정주 선생이 음악에 첫 눈을 뜬 곳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가를 숨겨주었다는 최상현 가옥의 처마와 현판



양파정 전경

같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송일학교 선생이자 양림리 교인이던 남궁혁의 집에서 결사되어 타일쫓던 광주의 만세운동은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었으며, 그 주역들에 의하여 1920년대에는 광주만의 다채로운 사회운동과 저항 운동들로 승화되었고 마침내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그 기운이 이어졌다.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시내 지역과 양림리는 강이 가로막고 있고 양림리의 숲은 온신에 적당하여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주역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비밀회합을 양파정과 수피아 뒷산(양림산) 등에서 갖기도 하였다. 뒤이어 장재성을 비롯한 학생독립운동 주역들은 양림리 농가인 김기권의 집에서 비밀 모임을 갖고 독서회중앙부를 결성함으로써 마침내 거대한 합성의 첫 단추를 끼웠다. 당시 옥살이를 거둬하던 김기권은 학생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문방구를 차릴 때 많은 금액을 희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양림리에서 시작된 야구와 근대 스포츠는 훗날 광주고보 야구부가 일제의 차별에 항의하는 등 애국적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녹색별이 사라진 녹색상회의 모습

양파정의 발치에는 일제강점기에 김후옥이 1931년 건축, 한쪽에서는 '이순신표 고무산'을 팔면서 청소년들에게 유도를 가르쳐 대한남아의 기개를 길러주던 녹색상회가 남아있다(녹색 곧 녹색별은 에스페란토의 평화와 희망을 상징한다). 한 때 종로의 김두한이 존경하였다는 김후옥이지만 일제의 강압으로 광주 최초의 체육관인 녹색상회는 문을 닫고 말았다. 그의 청소년 육성 활동은 고든 어비슨(Avison)이 광주YMCA 회관 부지 구입대금을 선뜻 내놓으면서 지속될 수 있었다. 어비슨은 고종 황제 어의(御醫)였던 올리버 어비슨(또는 에비슨, 어비신, 세브란스의전 설립자)의 아들이며 호남지역에 파송된 농업전문가이었다. 자녀를 저금통까지 털어 희생하던 고든 어비슨 부부의 업적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 미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큰 세계 대회 등에서 비종양에 다루어질 만큼 이 남도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1939년 일제에 의하여 추방되기까지 어비슨 부부는 한국의 피폐한 농촌에 쌀농법 개선, 종자보급, 축산기술보급, 과수농법 보급, 농민 야학, 수탈에 대처하는 신헌 조직으로



정윤성로 개설을 기념하여 열린 한·중 오선자축제

제값 받기 운동, 캔 제품의 개발로 어린이 사랑을 낮추기, 소년단 등 다음 세대 기르기와 축구단 유도단 권투단 등 다양한 사회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광주 전남지역의 농업혁명 운동과 청소년 육성에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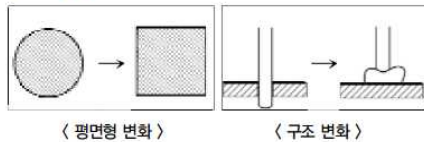
21세기 새로운 한옥의 가능성

김지민 교수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1. 머리말
2. 우리의 옛 한옥
3. 한옥의 운명과 새로운 정착 가능성
4. 한옥의 매커로 자리잡은 전라남도
5. 맺음말

1. 머리말

인간은 집을 필요로 했다.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개략 1만년 전인 신석기시대부터였고 당시의 집은 움집(窪穴住居)이라고 하는 원뿔형의 반지하 집이었다. 초기 움집의 평면은 원형(지름 5M 정도)이었으나 점차 편리한 방향으로 변한다.(청동기 시대) 또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기둥이 땅에 묻히지 않고 자상의 돌(석)위에 얹혀졌다. 당시의 이러한 변화는 건축적으로 구조와 기능을 해결한 무척 획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의 살림집은 시대에 따라 꾸준히 진화해왔고 근래의 '한옥'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아파트, 이제 아파트는 우리 주거문화의 대명사가 됐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서 사는 것이 이상할 정도가 됐고 '한옥'이라고 하면 문화재, 또는 나와는 먼 향수적인 옛 주택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즉, 최근 Well-Being 문화를 추구하면서도 오로지 휴과 나무로만 지은 생태건축의 원조 격인 한옥을 우리의 주거문화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거기에는 수요자의 의식, 건축구조, 편리성, 건축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전라남도에서는 2004년 6월부터 한옥 보급사업이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추진 배경은 한옥을 21세기에 남도의 살림집 즉, 친환경 주택으로 정착시켜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하는데 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수요가 늘어나 2010년 상반기에도 13개 행복마을(예비)이 지정되었고 이곳에 219동의 한옥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이러한 전남의 한옥보급 정책은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앞으로 전남이 한옥의 메카로 자리잡아 날이 멀지 않았고 지금도 많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0년 10월에 영암 구림마을 일대에서 제1회 대한민국 한옥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우리의 옛 한옥

한옥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삶에 맞게 여러 검증을 통해 완성해 놓은 정주공간이다. 따라서 그 안에는 우리민족의 동질성이 있고 유품의 다양한 전통문화요소가 깃들여 있다. 이제 완형의 전통한옥은 특별한 보존계획 하에 있는 특정 가옥(문화재 지정가옥 등)을 제외하고는 농어촌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과거의 주 문화가 현대 주 문화의 편리성에 밀려 더 이상 그 존재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없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농어촌에 근대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가 된다.

한옥은 크게 나누어 주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살던 집-民家와 '양반'이라고 부르는 높은 관직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 살던 집-班家로 구별된다. 반가는 士大夫가옥이라고도 한다. 두 주택은 규모에서부터 세부장식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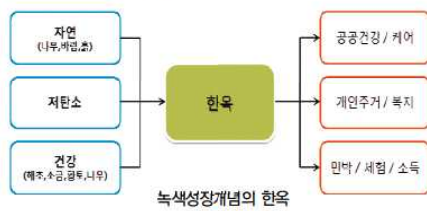


한옥의 구성은 공간적으로 '온돌'과 '마루'라는 지극히 대비적인 공간이 만나 하나를 이룬다. 즉, 공간은 형태상으로도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성격이 다르지만 한옥을 이루는 바탕이 되고 한옥의 우수성 또한 거기에 있다. 즉, 두 공간은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붙어 있지 않는 존재로서 돌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 되고 있다. 이는 성리학에서 우주만물을 리와 기의 복합체로 보고 리와 기는 서로 돌이되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어 생명을 유지한다는 개념과도 같아 보인다.

	온 돌	마 루
쓰임	방(침실)	대청, 뒷마루
공간	닫힘	열림
환경	따뜻	서늘
개념	음	양
바닥	구들	나무(침판)
구조	흙, 마감(한지)	흙, 화, 나무(판자)
천정	반자	노출(사까래, 보)

한편, 열려있는 '마당'도 한옥의 구성에서 그 비중이 매우 크다. 비록 마당은 건축학적으로 외부공간이지만 방(온돌)과 대청의 확장 내지는 연결개념으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조와 재료 측면에서 한옥은 지극히 친환경적이다.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즉, 건축에서 CO2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은 바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한옥이다. 즉, 한옥은 있는 자연(흙, 태양, 물, 바람 등)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한편, 한옥은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한-브랜드의 핵심 과제로도 자리매김 하고 있다. 결국 21세기 최고의 친환경 건축은 우리의 전통가옥인 '한옥'에 대한 토착시식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



3. 한옥의 운명과 새로운 정착 가능성

백제시대에는 백제시대에 맞는 한옥이 있었고 조선시대 역시 그 시대에 맞는 한옥이 있었다. 지난 20세기 초에도 한옥은 시대성에 따라 큰 변화가 있었다. 즉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기본구조(목조가구식)는 그대로 두고 벽돌 등 새로운 재료를 사용했고, 뒷마루 앞에 유리문을 달기도 했다. 이러한 한옥을 '개량한옥' 또는 '근대한옥'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의 북촌한옥을 들 수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옥의 맥은 거의 단절되었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않았다. 근대화가 한옥을 비껴나지 않았다. 즉, 한옥이 지속가능한 우리의 주거문화로 정착

하는데 실패했다. 도시의 아파트, 농어촌의 벽돌조 슬래브 주택이 우리 주거문화의 대명사가 된 지도 어느덧 30~40여년이 됐다. 그러나 한옥의 개념을 어느 정도 품고 있었던 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 목조주택도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 다시금 한옥을 우리 주거문화로 되살려 놓을 수 있을까?

서민이 살던 농어촌의 한옥이 사라진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그 기점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정에서는 1990년대 까지도 벗짐으로 이은 초가에서 살았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당시 지붕개량에 사용된 주재료는 골슬레이트와 골합석이었다. 오랜세월동안 목조 흙벽 위에 올라가 있던 벗짐이 내려오고 새로운 재료가 올라갔다. 이것은 분명 우리 주택사의 운명이었다. 슬레이트는 당시 최고의 상품으로 신기할 정도였다. 이것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었을까?



- 벽돌조 슬래브 주택 1990년대 이후 일반화된 한국 농촌 주택의 한 유형
- 집 전체를 새롭게 보수한 전통목조 주택
 - 1차: 1970년대(초가 - 슬레이트)
 - 2차: 내부연면 개수(보일러, 청호 등)
 - 3차: 2000년대 지붕개량(슬레이트 - 강판)

한옥이 농어촌에까지도 우리의 주거문화로 계속 발전되지 못하는 것에는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중에는 '한옥=불편', '한옥=춥다', '한옥=비싸다'라는 등식이 1차적으로 자리한다. 앞으로 '이' '부'로 어느 정도 바꿀 수만 있다면 한옥의 재정착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결국은 새로운 주거 브랜드로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다.

앞으로 한옥이 지속가능한 우리의 주택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대주택과 견주어 크게 불편함이 없고 건축비 또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아무리 모양이 좋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다 해도 시대성, 즉 편리성과 경제성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주택으로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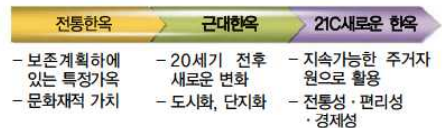
그 가능성 방안으로는

- 건축비 절감을 위해 재료의 규격화, 설계의 표준화, 시공의 합리화가 필요함
-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현대주택의 평면 설계개념을 과감히 도입해야 함
- 즉, 한옥의 외형을 살리면서 오늘에 사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평면개념이 이루어져야 함
- 한옥에 맞는 새로운 설비 및 재료개발이 필요하다 (난방, 기와, 벽체 등)

그동안 한옥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차질 잘못하면 비전문가에 의한 한옥 설계 및 시공은 한옥의 질적 가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 한옥을 전문으로 설계와 시공을 하는 '한옥 건축가'가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한옥이 좋으면 앞으로 한옥을 따라 농어촌 및 도시 근교로 사람이 몰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싸지 않은 명품 한옥 브랜드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지원 및 관계법령의 정비도 있어야 한다. 택지개발도 아파트단지 조성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고 한옥마을 조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한옥은 APT문화를 어느 정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옥의 종류도 살림집만이 아닌 관광 사업용 숙박시설(한옥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공공건물(마을회관, 면사무소, 유치원 등), 문화시설(박물관 등), 휴게시설 등 한옥의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2.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두 번째 이야기

이명규 교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 새로운 도시 만들기와 광주 -첫번째 이야기 (2010년 3월호에 기재)

광주도시의 공간발달사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라고 부르듯이 인간의 생활 문화는 도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창조도 바로 도시에서 시작된다. 도시라는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고 창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업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먼저 광주시의 공간발달에 대한 약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내륙도시로서의 광주, 사라진 성곽

무등산을 배경으로 광주천과 영산강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현재의 광주시는 입지적 특성상 내륙도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상해, 홍공, 고베, 요코하마, 부산, 인천 등 해안가에 입지하고 있는 도시들이 근대기에 거대도시로 발달하였다. 이에 비해 내륙도시였던 광주시는 근대이후 도청이 나주에서 광주로 이전하면



광주읍성 광주읍성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진으로, 동문인 서원문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치 않다.

서 급격히 발달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근대이전의 공간적 역사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으며 심지어 광주성곽도 이제는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시가지계획, 두 패턴의 만남

일제강점기에 행정중심도시로 서서히 발전해 온 광주시는 도시 전체에 대한 틀을 세워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도로정비를 하는 소극적 수준에서 도시가 만들어져 왔다. 이러한 방식을 시구개정이라고 하는데, 일본 본토에도 일부 도시에만 적용된 개발방식이였다. 당연히 시구개정사업은 강점기에 광주시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만주사변을 계기로 1939년에 시구개정을 대신하여 시가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광주시에 적용된 시가지계획은 특이하게도 군사적 목적이 많이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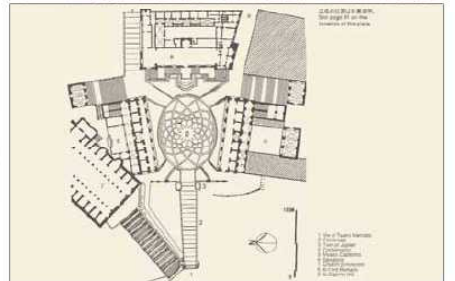


1939년 시가지계획 1939년에 수립된 광주 최초의 도시계획인 시가지계획도로 기존시가지는 그대로 나누고 광주역을 중심으로 바로크형태의 도로망을 설정하였다.

그 단적인 예가 광주역과 상무대를 연결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를 개편하는 개발계획이였다. 이런 시가지계획이 해방이후 면밀한 검토와 개편이 없이 그대로 추진되다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가지계획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은 현 도시계획의 전신으로 구시가지의 도로망 등 도시의 근간이 되는 기본패턴이 설정되었다는데 있다. 총독부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광주시가지계획은 기존의 광주읍성시대부터 발전해 오던 격자형패턴을 무시하고 광주역을 중심으로 바로크식의 도로망 패턴으로 도시의 골격을 설정하였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두 패턴이 만나는 신안동을 중심으로 한 일대는 기묘한 도로들이 개설되어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도시개조와 광장

일찍이 서구의 도시개발에서는 광주와 같이 두 개의 패턴이 만나는 지점에 광장 등을 신설하여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동무대를 제공하고 두 패턴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묘안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광장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 광장은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다. 서구의 도시와 동양의 도시를 구분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광장의 유무라고 말할 수 있다. 구도청앞에 있는 민주광장(도청광장, 분수광장)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소통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서구와는 달리 시민이



캄피도글리오광장과 배치도 르네상스시대 미켈란젤로가 계획한 캄피도글리오광장(Piazza del Campidoglio)의 모습으로 로마의 3대 광장의 하나이다.

자유롭게 모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은 아니다. 서구에서는 이런 광장의 중요성을 일찍 간파하여 광장을 만드는데 많은 투자를 하여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중세와 르네상스시대 로마의 도시개조사업을 들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광장은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분수나 오벨리스크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오픈스페이스로 두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곳을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광장의 바닥에도 많은 공을 들여 예술적으로 멋진 디자인을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스팔트도로로 둘러싸여진 광장이 아니라 시민이 즐기고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예술공간인 것이다.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에도 시민들이 만나고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멋진 광장을 기대해 본다.

kwing@hammail.net

한일지도판매(주)

한일지도판매(주) ☎ (062)524-3059, (062)529-1409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477-2 운암주유소 뒤

관리지역 세분화 신평지도 출시!!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은 정부에서 시행한 시·군·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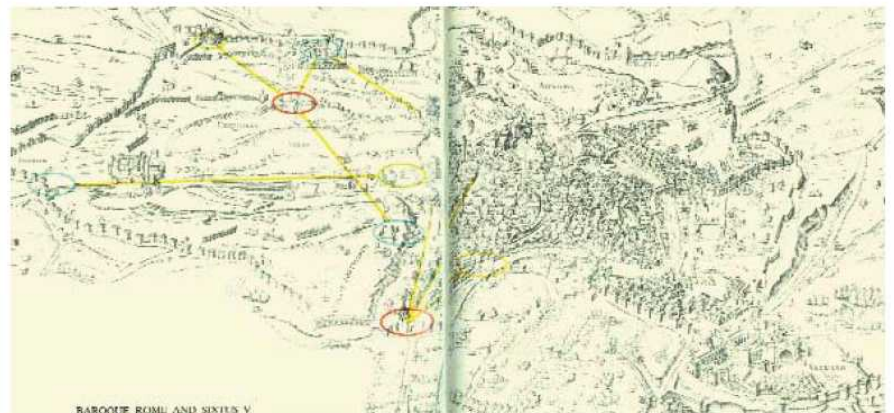
특보 2010년 최신 광주광역시 지번도책 판매 중!

이번에 새로 나온 신평 지도책은 전품목 30% 세일

★최신 광주, 장성, 담양, 곡성, 화순, 나주, 함평 지번도책★

목포·무안·영암·신안군 4개 지역을 1권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되어나 판매중입니다.

상담문의 ☎ (062)524-3059, 529-1409



로마 바로크시대 식스투스5세 바로크시대 교황 식스투스5세(Sixtus V)에 의해 추진된 로마개조계획으로 광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건축공간의 식재설계 — 제도와 공간채우기를 넘어

조동범 교수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건축법 32조 "대지안의 조경"과 차치단체 건축조례에서는 용도지구의 종류나 대지면적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조경면적을 정하고 있고 심어야 할 수목의 규격(교목과 관목), 성장(상록과 낙엽)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는 바와 같다. 건축과 조경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묶고 있는 이 조항은 건축에 있어서도, 조경에 있어서도 불만(?)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잦다. 건축의 입장에서는 마치 불필요한 규제라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이고, 조경의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묶여있다는 것이 조경업역을 보장한다기보다는 고착된 주종관계처럼 느껴져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나무심기와 디자인으로서의 식재

건축부지가 제한되어 있거나 공사비가 충분하지 못할수록, 즉 열악한 설계여건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견본을 최대한으로 쓰면서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건축물 접근 공간 등을 확보하자면 결국 조경면적 확보는 뒤로 밀려나기 일쑤이고, 이런 저런 조각을 모아 법적인 조경면적을 넘기게 되는 상황에서는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설계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형식적인 나무심기 정도로 끝나고 말 것이다(그렇다면 그 이상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하실 분은 이 글을 더 이상 읽지 않으시길 권한다). 조경분야에서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자 조경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두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경을 아직도 나무 심는 일 정도로 알고 있다"라는 한탄이다. 그것은 나무가 중요한 소재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디자인으로서의 식재와 전통적인 입장에서 생산과 증식을 목적으로 나무심기는 다를진데...라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식물재료를 선정하거나 공간구성요소로서 그것의 배치방법을 다루는 디자인 분야를 식재설계(planting design) 또는 조경배치(plant arrangement)이라고 한다. 건축과 조경과의 관계에서 볼 때 식재가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조경설계와 식재설계를 완전히 같은 내용으로 보는 오해는, 일반인에게는 어쩔 수 없이 흔한 현상이다.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조경은 가까운 분야니까 좀 더 깊은 이해와 분별력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결국 기대하는 만큼의 인식수준은 아닌 듯하다.

조경설계의 요소로 볼 때 식재설계를 제외하면 조경시설물이나 포장, 물, 지형 등의 요소가 그 나머지 것들이 되는데, 아무래도 자연적 요소, 즉 성장하는 생명체이자,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매개라는 점에서는 다른 요소에 비해 확실한 차별성을 갖기는 한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능성이 건축에서는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여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설계해둔 것은 그 개념과 의도대로 고정되어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요소가 성장해버려 조망이나 건축물을 가린단든지 혹은 수목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죽는 등의 양적 변화는 물론 계절변화에 따른 시후(時候)적 변화(phenological change)까지도 건축공간의 입장에서 고려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건축과 조경간의 관점상의 큰 차이이기도 하지만 건축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식재만큼 건축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감각차원을 더해 줄 수 있는 요소도 실은 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식재 디자인이 외부공간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건축물의 외관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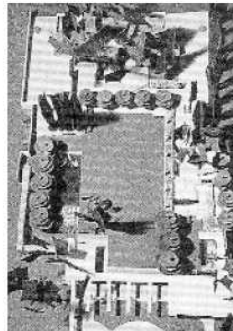


공공청사와 같은 대형건축물에서는 나무가 건축물을 가리는 것을 꺼리는 모뉴먼트적 본능이라도 있는 것일까? 최초의 건축형 광장에서 식재공간으로 바뀐 광주시청사의 전면공간. 디자인 개념의 유지라는 면에서 건축의 입장에서는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쉽게 섞이기 어려운, 건축공간과 식재공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보여준다.

식물재료, 공간을 채우는 요소인가? 공간을 만드는 요소인가?

건축 외부공간의 식재방식으로서 가장 단순한 방식은 기반식재(foundation planting)라고 한다. 마치 기초화장(파운데이션)처럼, 건물과 대지가 만나는 부분, 특히 플랫폼로 경계가 지워지는 공간에 농향나무나 회양목, 철쭉 등과 같은 키 낮은 식물들을 밀식하는 오래된 방식이다. 여기에서 조경공간이 커지고 건축과 독립된 식재공간이 확보되면 기반식재와 같은 공간채우기에서 벗어나 공간형성 요소로서 식물재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축 외부공간에서 조경식물을 공간형성을 위한 독자적 디자인 요소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공간에 대한 추구가 활발하였던 근대 모더니즘 시기에서부터이다. 1900년대 초 하버드대학에 조경학과가 설치되고 조경

디자인교육이 시작되었지만 1930년대까지도 보자르양식의 설계교육에 머물러 있던 조경에 비해 건축은 바우하우스의 월터 그로피우스가 초빙되어 디자인 교육의 혁신을 이끈던 중이었다. 당시 조경학과 대학생이었던 제임스 로즈(James Rose)는 Progressive Architecture의 전신인 Pencil Point지에 조경디자인 교육의 넓은 방식에 반기를 들며 모더니즘 건축설계와 같은 방식으로 개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는 식물재료를 매스보다는 볼륨 즉, 공간형성(space articulation) 혹은 건축적 용도로 파악하면서 디자인 요소로서 제어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예를 들면 바닥면, 벽면, 천정면과 같은 공간분절 요소에 식물소재 유형을 대입하여, "잔디나 지피류 등은 바닥면을 구성하고, 관목류 등과 같은 성상은 벽면을 형성하며(이중 천정된 형태의 가지와 잎이 밀생한 상록활엽은 거의 건축벽면과 같은 성질을 가질 것이다), 키가 큰 교목의 캐노피는 천정면을 형성하는 것으로 식물재료를 분류하려는 것이다. 설계형태 면에서 정형성이 폭넓게 추구되었음은 물론이다.



제임스 로즈의 실험적 디자인을 보여주는 설계 모형 사진. 공간을 구분하고 연속시키는 파티션으로 식물재료를 사용하는 건축적 용도로서의 개념이 드러난다.



토마스 처치의 밀러하우스, 사리넬이 설계한 황금비율을 베이스로 한 모더니즘 건축으로부터 외부공간으로 이어지는 수목의 열쇠와 캐노피는 또 다른 건축적 공간을 형성된다.

문화와 시간의 디자인으로서의 조경식재

건축이든 조경이든 공간과 형태, 기능에 대한 탐구는 모더니즘의 특징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모더니즘 이후 동시대의 조경설계는 더 이상 공간형성만을 위해 식재설계를 하지는 않는다. 공간에 집착했던 것이 모더니즘의 특징이었다면, 조경재료는 자연재료라는 점 때문에야말로 공간이라는 구속의 틀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식물요소를 형태적인 골격으로만 보지 않고 그 고유속성과 아름다움(수형과 가지의 패턴에서부터 향기와 같은 감각적 요소 및 사람, 생물을 위한 식용경관(edible landscape)등으로)과 변화(꽃, 단풍, 녹음 등), 또 요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관계(생태)에 눈뜨게 된다는 관점의 발견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모방하여 그 공간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최선의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오페이다. 자연의 표피적인 모습 베끼기도 결국 시각적인 논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동시대의 건축이 추구하는 공간이 더 이상 그 형식이나 시각적 공간미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건축공간의 조경식재 또한 식물의 성장과 변화를 그 일부로 받아들이며 문화와 시간의 디자인으로 보여주는 눈을 필요로 한다.

tobcho@chonnam.ac.kr



뉘앙스의 공간을 추구한 덴 카일리에 의한 노스캐플라이나 뱅크플라자 조경. 배풍나무와 잔디로 이루어진 매우 전형적인 식재공간이지만 실제로 지면에서의 느낌은 감각적이며 편안하다.



어반라운지로서 설정된 사이타마 신도심의 게이키히로바(느티나무광장). 녹음수료써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개념에 그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 도시의 오래된 신사 숲을 인공지반의 하늘정원으로 옮기고 그 둘을 도시녹지네트워크로 잇는다는 확장된 컨텍스트적 개념이 바탕이 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 27일(화)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건축디자인발전에 기여하고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1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건축사, 건축주, 공동설계자에게 도시사상을 수여하였다. 응모부문으로 사용승인부문에 전주대학교 EM생활 문화관(대상), 장수 한누리전당(금상), 계획 부문에 한지를 쌓다(일반 대상), 전통의 현대화를 통한 한옥마을 문화체험관(학생 대상)이 선정되었다.

- 사용승인부문 대상 - 전주대학교 EM생활 문화관
금상 - 장수 한누리전당
- 계획부문 학생 대상 - 전통의 현대화를 통한 한옥마을 문화체험관

2009년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전주대학교 EM생활 문화관 사용승인부문 대상

-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03
- 용도 :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 건축면적 : 893.34㎡
- 연면적 : 1,823.51㎡
- 규모 : 지상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멘조+벽식
- 설계 : (주)건축사사무소 우림에이앤씨
권연하 건축사
- 자료제공 : (주)건축사사무소 우림에이앤씨
- E-mail : woolimanc@hanmail.net



전주대학교내에 들어선 EM생활문화관은 각종별 EM체험관, 모니터링센터, 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으며 배치개념은 기존 자연지형을 정원으로 활용하여 쾌적성을 극대화하고 기존캠퍼스와의 차별성을 부여하였다. 게스트하우스 각세대에 독립된 마당 정원을 설치해 주거공간의 위치구성 및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기능에 의한 형태를 분리하여 게스트하우스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였다.



장수 한누리전당 사용승인부문 금상

-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472
- 용도 : 체육관, 실내수영장, 소극장, 헬스장, 야외무대
- 연면적 : 7,297.27㎡
- 건축면적 : 4,139.34㎡
- 규모 : 지하층, 지상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 설계 :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 자료제공 : (주)길 건축사사무소
- E-mail : goodarc@ki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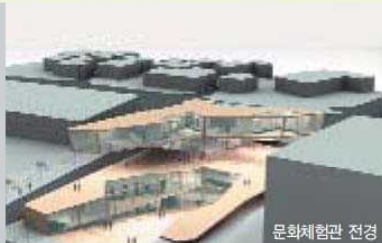


충절의 고장 장수군의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는 상징성, 예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 문화공간으로 지역문화의 핵심공간이 될 수 있고, 군민의 여가 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장수 한누리전당은 문화 및 체육시설인 산디관, 너울관, 기림관이 어울린 종합문화공간으로 의암호(구, 두산제) 주변녹지와 어우러진 창의성이 돋보이는 건축물로 높은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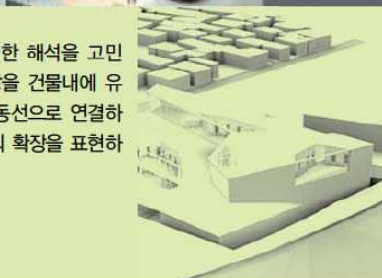


전통의 현대화를 통한 한옥마을 문화체험관 계획안 계획부문 학생대상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269-3
- 용도 : 야외공연장, 전통체험장
- 연면적 : 5,387㎡
- 건축면적 : 1,896㎡
- 규모 : 지하층, 지상3층
- 설계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
소재남, 송문영, 이신혜
- E-mail : sjn0121@naver.com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전통에 대한 해석을 고민하고 실험한 작품으로 전통공간의 하나인 마당을 건물내에 유입시켜 야외공연장 전통체험공간을 유기적인 동선으로 연결하였으며 커튼월 유리를 사용하여 시선 및 공간의 확장을 표현하였다.



Interview

행복마을로 오세요 -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봄꽃의 향기가 그득한 3월말, 전라남도 도청 8층 행정동에 위치한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를 방문하였다. 행복마을과는 전남도 핵심사업의 일환인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 2006년 9월 신설된 부서로써, 행복마을 조성과 더불어 도시민유치, 농어촌 개발, 한옥 보전 및 건립, 건축 주택건설관리, 지역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행복마을과 신명수 과장을 만나 본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신명수 과장
전라남도청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

현재 전남도 행복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저희 행복마을과에서는 한옥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옥자원사업'과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개보수사업', 주민복지 증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을 추진 중이며, 이와 같은 사업은 전남도의 핵심 프로젝트인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옥자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한옥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주거문화의 대중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옥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전략산업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내 한옥을 신축토록 의무화했으며, 시공을 전담할 전문시공업체 29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과 전라남도 한옥 보조금(2,000만원)을 일정 공사 진도에 따라 기성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행복마을에서는 도 지정 한옥전문 시공업체가 아니면 한옥을 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한옥 시공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기성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인건비, 자재대금 등의 자금 압박해소 등 안정적인 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한옥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 한옥이 밀집해 있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농촌마을 중심지에서 한옥 체험위주로 개최하여 타 박람회와 차별화된 계획으로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옥건축박람회 계획수립운영 최종보고회

전남도의 대형행사인 F1코리아 그랑프리(10월 22일부터 10월 24일) 및 왕인국화축제(10월 29일부터 11월 21일)와 연계 추진하여, 올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영암군 구림마을 일대(한옥보존시범마을)에서 전남도와 영암군의 주최로 열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전남도 지사와 김일태 영암군수, 조용준 조선대학교 등 한옥 건축박람회 추진위원들과 '한옥건축박람회 계획수립운영'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대도시의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일회성 박람회와 달리, 한옥이 있는 농촌 마을의 중심지에서 개최하는 한옥건축박람회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현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 필요한 시설물 건립과 프로그램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 개발하여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전남도에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8,000호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61호(전국 23.26%)를 확보하여 1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2010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을 대상으로 동당 600만원씩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2010년 6월 사업을 착수, 연내 완료하게 됩니다. 우리 전남도가 타 시도보다 가장 많은 사업량을 확보함으로써 낙후된 전남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 주택의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해보면 상모마을 한옥단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설명과 함께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영세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12년까지 16개 시군에 127지구, 총사업비 5,31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소공원, 복지회관 등 도시 시민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역 인지도 향상 및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유도할 것입니다.

앞에 언급 하셨듯이 위의 사업은 모두 전남도의 핵심 프로젝트인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밑그림이라고 하셨는데 '행복마을 조성 사업'의 소개와 추진상황, 추진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마을은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현주민들과 후손들이 정착하고 도시민들이 돌아오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거환경 정비(한옥으로 주택개량, 마을 상·하수도 및 회관, 진입로, 안길, 주차장 등 확충)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소득증대(마을의 특화물품을 소득화하고, 도시민



무안군 문탄면 약실마을 한옥단지

을 유치하여 민박과 체험을 실시하면서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전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9월, 전남도 행정지원국에 행복마을과를 신설하여 전담키로 했으며, 2005년 12월,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제정, 2006년 1월, 한옥발전기금 조성운영, 2006년 4월, 한옥시공 매뉴얼 제작 배부, 2009년 6월, 한옥보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2010년 2월, 행복마을내 한옥전문 시공업체 지정, 행복마을 현황 총51개 마을(한옥 1,040동 건립 완공 및 추진 선정 등)입니다. 추진성과로는 2009년 9월말 기준, 외지에서 인구가 전입증가(147명)했으며, 마을주변 토지가격이 상승(평균 200%)하였고, 한옥민박을 통한 농외소득이 증대(호당평균 140만원)됐습니다. 이외에도 행복마을 추진으로 도농교류가 확대 됐으며, 고령화된 농어촌 마을이 젊은이들의 활기로 넘쳐 나는 등 대내외적으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농어촌 살리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온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매년 좋은 성과를 보이며, 전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옥 건축 관련 산업이 육성됨에 따라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마을과를 비롯하여 전남도청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도민과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인터뷰 : 정영범 건축사 기자
정리 : 광속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SPACE 3

(주)공간간인건축사사무소
강 필 서

062) 380-7510-5
팩스 062) 380-7505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동 127-7 GS빌딩7층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는 박재홍 건축사!

이 지구상에 수많은 건축사들이 있었기에 메소포타미아 건축, 그리스 건축, 로마 건축, 고딕 건축, 르네상스 건축, 현대 건축을 거쳐 존재하는 건축물은 수백수천 년을 거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발전해 왔다. 그 이면에는 건축사들의 수고로움이 있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우리 건축사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아름다운 건축물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 형체적인 것과 함께 정신적·인간적 아름다움이 동시에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형체적 아름다움을 넘어

형체적 아름다움을 넘어 정신적·인간적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건축사를 소개받아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주)홍건축사사무소를 찾았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박재홍 건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그날도 짬을 내어 육체적·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힘들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서려 하고 있었다. 그런 박 건축사와 잠깐이라는 단서를 달고 마주 앉았다. 그를 본 순간 전형적인 건축사 이미지 보다는 따뜻함과 편안함이 물신 풍겼고, 끈끈한 인간미가 넘쳐나는 인상을 받았다. 소문대로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우리들의 친근한 이웃 친구처럼 느껴졌다.

그동안의 삶을 살짝 물어보니 겸연쩍은 표정으로 "제가 뭐 한 게 있나요?"하며 손사래를 친다.

장애와 기난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갔건만 자신이 한 것은 별게 아니라면서 겸손 해 하였다.

국제와이즈맨과 박재홍 건축사

박 건축사의 봉사활동은 국제와이즈맨(Y's Men International)과 인연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1992년에 국제와이즈맨 광주무등클럽 회원이 된 그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바쁜 생활 속에서도 곡성의 삼강원·나주 부활의집·남평의 새벽동산



등 불우시설의 원생들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 임동 지역의 다문화가족과 독거노인들에게 의료 및 급식 봉사활동을 펴기도 했다. 또한 금호지역의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2003년도에 광주무등클럽 회장, 2005년도에 한국남부지구 재무국장, 2007년도에 광주동지방장을 역임하게 되었으며, 국제와이즈맨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였다.

이거주의가 팽배해진 지금의 세대에 비춰볼 때 박 건축사의 이같은 행보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적으로 국제와이즈맨(Y's Men International)은 YMCA안의 범세계적인 우호 봉사단체로서 현재 120여 개 국 50,000명의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5개 지구 10,000여명이 활동 중이며 광주전남은 한국남부지구로서 6개 지방, 80여개의 클럽, 5,000여명의 회원들이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희망과 삶의 기쁨을 심어주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미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오늘 저녁거리를 염려하며 고생하는 이웃들이 우리주변에 너무 많다며 안타까워하는 그는, "그들도 같이 손잡고 가야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음지에서 묵묵히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그를 우리 건축사들이 본받아 큰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정이 넘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박 건축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바라는 따뜻한 세상이 우리 주변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인간미가 넘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박재홍 건축사의 장내가 지난 연말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신남 건축사 기자 (psn0188@hanmail.net)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는 건축사

사회활동으로는 광주YMCA 이사, 서구문화센터 운영위원, 금당포럼 임원, 광주 YMCA 회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가 하면, 동서(영·호남)갈등을 해소키 위한 일환으로 남대구클럽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전 회원(가족동반)이 합동행사를 개최 영호남 화합을 위해 앞장서는 등 사회운동가로서의 역할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

사회활동 뿐 아니라 그의 실제적으로는 치평동 신세린 빌딩과 수완지구 현진에비빌 공동주택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적극적인 그에게 우리 모두가 응원에 박수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황토의 모든 것

남강황토세라믹이 드립니다.

황토 생활공간

- 황토의 원적외선
- 풍부한 미네랄 흡수
-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
- 한방병원, 산후조리원
- 단식원, 기도원
- 레스토랑, 카페
- 유치원, 학원
- 전원주택 등



남강황토세라믹
NK.Ceramic

본사 : 전남 화순군 한천면 반곡리 677-7
TEL : (061)374-9100
FAX : (061)374-7154
홈페이지 : www.nkhwangto.com

학교소개는 우수건축인 양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하였으며, 먼저 4년제 또는 5년제 대학교의 건축전공을 광주·전남·전북 등 소재지별로 구분한 후 학교명의 한글 순서로 게재한다. 기사내용은 해당 학과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편집자 주)

인간화 교육 · 민족화 교육 · 현대화 교육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맞춤식 취업트랙교육’을 통한 건축전문인력 양성

호남대학교 환경이공대학 건축학과는 1988년에 신설된 이래 제19회 졸업에 이르기까지 약 68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어 건축분야 각계각층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호남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인간화 교육 · 민족화 교육 · 현대화 교육에 따라 지역 및 국가의 사회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건축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1. 올바른 직업 윤리관과 상호 조화적 교양을 갖춘 전인적 건축인 양성
2. 21세기 문화기반사회, 세계화를 선도할 창조적 건축인 양성
3. 현대문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실용적 건축인 양성

수혜자 중심의 건축교육지향

호남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인간의 쾌적한 건축 환경 창출에 필요한 경제 · 사회 · 문화 · 기술 ·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기초과학적 지식의 바탕 위에 건축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수행한다. 또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기술개발 및 실무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이론 · 건축실험 및 실습 · 현장답사 · 현장실무 및 교육을 수행하며, 여기에는 건축의 각 분야에서 고도의 학술적 지식과 전문자격을 지닌 전임교수, 실무에 정통한 겸임교수 그리고 건축적 경험이 풍부한 석학 초빙교수에 의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교육과정의 틀은 건축디자인 교육과 건축공학시스템 교육으로 나누어 스터디 플랫폼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 수혜자가 스스로 진로의 방향에 맞추어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수혜자 중심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 상호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전문인으로서의 자질에 필요한 건축학교육인증/건축공학교육인증의 교육개혁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실용적인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학사 · 석사를 연계한 4+2년제 건축학 운영

호남대학교 건축학과는 국내외의 일류 대학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7명의 전임교수와 겸임교수를 주축으로 건축관련 설계 및 시공, 역사, 의장, 구조, CM, 환경, 설비, 실내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의 건축 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설계실, 모형제작실, 사진 암실, 재료실험실, 구조실험실, 건설관리실, 환경 및 설비실험실, 멀티미디어실, CAD실습실, 세미나실, 플로터실 등 최첨단의

시설 활용으로 이론과 연계되는 실험과 경험을 통한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학과 강의실 및 설계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24시간 설계실 개방으로 학생들의 학구열을 더욱 고조되었다. 또한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4+2년제 건축학을 운영, 학 · 석사학위 취득을 가능케 하고, 교직과정(2급 건설 정교사)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학분야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

호남대학교 건축학과는 1999년도에 교육부 전국대학 건축 관련학과와 건축학분야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본 학과의 경쟁력을 널리 입증한 바 있으며, 이러한 학과 역량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대학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5년간 20억이 지원되는 '광주환경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건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향후 본 건축학과와의 획기적이 지속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2000년에 개설된 대학원은 건축학과에서 건축 전문이론과 기술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육하여 현재 설계사 및 기술사 또는 경영자로서 종사하고자 하는 건축전문 관련인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이론과 고도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연구 및 습득케 하며, 국내의 건축 산업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에 개설된 산업경영대학원 건축공학과에서는 인간 활동공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 창조를 위해 건축디자인분야와 건축엔지니어링분야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실무형 인재양성교육에 역점을 두어 학계와 국내외 건축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전문건축인 및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열정적인 동아리 활동과 뜨거운 동문애

우리 학과에는 총 6개의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전통건축을 사랑하는 모임인 [한터], 설계에 필요한 학문적, 기술적 교류를 위한 모임인 [N.C.G.], 자기 PR과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모임인 [Portfolio], 현장견학을 통한 건축경관 연구 모임인 [HUCEM], 친환경 건축을 위한 모임인 [에코빌], 건축을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인 [공간] 등의 6개 동아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 동아리들은 지도교수 지도하에 지속적이고 활발한 답사 및 교류 등을 통해 상호의 결과물과 그 동안에 얻은 정보와 지식들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매년 졸업 작품전에 즈음하여 선 · 후배 간담

회, 동문체육대회, Home Coming Day를 개최하여 졸업생과 재학생의 친목과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재학생들에게 현재의 건축업의 상황과 경험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전달해 주어 꿈과 미래 구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동문출신 겸임교수는 후배 교육에도 힘쓰고 있으며,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호남대학교 건축학과와 운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체계적 교육으로 실용적 건축인 양성

우리 학과에서는 국내 유명 건축가는 물론 건설회사 대표, 전문 기업경영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한 초청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건축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건축분야 외의 다양한 경험과 리더십 등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는 매년 건축대전 및 국내 건축 현장답사와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건축 답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닌 직접 현장답사를 통한 교육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해 나아가고 있다.

본 건축학과 졸업대상자들은 졸업설계 또는 졸업논문을 매년 개최되는 건축학과 졸업작품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3학년 1학기 말에서부터 졸업설계 및 졸업논문 중 한 분야를 선택한 후 배정된 지도교수 지도하에 각자 또는 조별 졸업 설계 작품 또는 졸업 논문을 작성한다. 우수한 작품에 대한 시상과 함께 우선적인 취업추천을 한다.

호남대학교 환경이공대학 건축학과
학과장 : 조형근 교수 (choken@honam.ac.kr)
(학과사무실 : 062-940-5088)



호남대학교 상형물과 설계스튜디오



전통건축을 사랑하는 <한터> 동아리 답사



건설안전 체험교육



해의 산업 시찰상해



해의산업 시찰(일본)

지역과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정보공유의 장으로

새 학년, 새 학기 개강. 캠퍼스 여기저기에서 돌아나는 새싹과 불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더욱 고조시켜주는 시절이다. 동고동락했던 졸업반 선배들은 아련한 추억과 흔적을 남기고 떠났고, 재학생들은 한 학년씩 진급하여 선배들의 체취가 서려있는 스튜디오에 등지를 들었다. 그리고 남은 빈자리는 뜻밖한 새내기들이 채웠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 어쩌면 예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새 학년, 새 학기의 캠퍼스 풍경이다.

그러나 느끼는 사뭇 다르다. '선배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선배라 부르며 다가오는 후배들은 많아졌다. 그로인해 학교에서도 동아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 위치가 되어 버렸다. 이제까지는 교수님과 선배들의 뜻을 열심히 좇아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후배들을 이끌기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법 무거운 책임감마저 든다.

그런 입장에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공모전이 생각났다. 선후배와 어울려 화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성취도와 역량을 점검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열심히 한다면, 꿈과 이상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도 있고, 취업에도 보탬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학생공모전 소식을 뒤져 정리해보았다. 더불어 눈에 띄는 책을 소개하는 것까지 과감하게 시도해 보았다. 아직은 서툴러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이 지면을 통해 건축가를 꿈꾸는 모든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지역과 학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정보를 교환하고 작품을 소개하며 학문을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13회 강구조 건축설계 공모전

- 주 최 :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 공모주제 : 「도시 공존권 개발(Urban Air Right Development)을 통한 다목적 문화예술센터」 - 철도부지, 하천부지, 공원용지 및 도로부지 등 공공용지를 중심으로
- 참가자격 : 건축관련 대학교, 원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내 공동작품
- 설 명 회 : 2010. 5. 7(금) 14:00
- 작품접수 : 2010. 7. 10 ~ 7. 15 (온라인접수)
- 관련문의 : www.steelcon.or.kr, (02)559-3564

2010 넵스 주니어 디자이너 포럼 참가자 모집

- 주 최 : 주식회사 넵스 (주방디자인 관련업체)
- 모집대상 : 2년제 이상 대학의 디자인 및 인테리어 관련학과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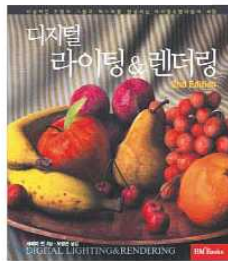
- 모집인원 : 넵스 드림어 총 20명
- 모집일정 : 2010년 3월 2일~ 4월 25일
- 지원방법 :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및 주방가구 디자인 과제 제출
- 과제주제 : Real Originality
- 진정한 독창성, 진품(眞品)
- 과제양식 : PPT 파일 (형식 및 분량 자유)
- 관련문의 : www.nets.co.kr

'하우스앤' 국제 On-line 디자인 공모전

- 주 최 : 광주디자인센터 (GDC)
- 응모기간 : 2010년 4월 1일 ~ 4월 30일
- 응모대상 : 디자이너, 일반인, 학생(국, 내외)
- 공모주제 : 하우스 디자인의 미래, 하우스 파트너 '하우스앤'
- 공모분야 : 세면대, 욕조 등 욕실용품 / 내·외장 벽탁재(Art Wall) 패턴 / 렌지후드 / 가전제품 / 조명(실내외 조명, LED) / 침구(매브릭)용품 / 방화문(실내외 Door) / 주택관련 / 기타 하우스 관련 분야
- 관련문의 : www.hausand-contest.com

디지털 라이팅 & 렌더링

- 제재미 번 저, 오영만 역, BM Books



3D의 표현은 각 프로그램으로 모델링된 모형들을 렌더링한 결과물로서 나타나며, 렌더링은 2차원 평면상으로 보여주는 모델링된 모형을 형태·위치·조명 등 외부의 정보를 계산하여 실감나는 3차

원 화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 책은 렌더링에 관련된 빛의 기본 속성에 관한 이론과 렌더링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으며, 표현력의 차이를 눈으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무리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아이디어다. 또 아이디어 표현의 질에 따라 아이디어의 전달력도 달라질 것이다. '조금의 차이가 더 큰 차이가 된다'는 카피라이터처럼 말이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수정 학생기자 (rozen_1@naver.com)

광주대학교 초청강연회

도시인 8년의 건축 스토리

- 강사 : 김용권(도시인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이사)
- 일시 : 2010년 4월 27일(화) 오후 3시
- 장소 : 호심도서관 5층 세미나 1실

건축에서 구조의 역할

- 강사 : 박무용(주)한국건설공법 대표이사)
- 일시 : 2010년 5월 11일(화) 오후 3시
- 장소 : 호심도서관 5층 세미나 1실

2010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한국건축문화大賞은 우리 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이다. 이번 2010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에서 '계획건축물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한다.

응모부분 및 대상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응모자격 :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방법

- 작품주제 : "회귀-본원으로의 회귀 Return to Nature"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1차 작품계획안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3차 심사 실시
- 1팀 3인 이내, 1인당 1작품 참여로 제한

작품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8층 중회의실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0. 5. 31(월) ~ 6. 4(금) kaa.kira.or.kr 접수
- 1차 작품접수 : 2010. 6. 10(목) ~ 6.11(금) 09시~18시
- 2차 작품접수 : 2010. 7. 12(월) 09시~18시
- 3차 작품설명 : 프레젠테이션 심사일은 추후 공지

시상내용

- 대상(1점) : 상금 500만원, 국토해양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 우수상(5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해외건축탐방
- 특선(6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입선(20점 내외) : 상금 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홍보편찬팀 Tel. 02) 3415-6862~4



주식회사 가도 A&C
GADO ARCHITECTURE & ENGINEERS ASSOCIATES

설계 / 감리
건축 공사업
주택 건설업

합리적 기획에서 실시까지 최상의 맞춤 프로그램
독보적 기술의 건축기술력과 노하우
21세기형 주택건설 지향



대표이사 위태준
[건축사]
전화 : 062-372-9949
팩스 : 062-371-9949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294-18번지 6,7층



(주)승 건축사사무소
SEUNG ARCHITECTS CO., LTD.

- ▣ 설 계 - 합리적, 경제적 맞춤 설계
- ▣ 감 리 - 믿음과 신뢰의 책임 감리
- ▣ 기 획 -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인 기획
- ▣ 컨설팅 - 전문지식과 기술의 종합컨설팅




대표건축사 문강욱
전화: 062) 526-8660
팩스: 062) 526-8663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414-3번지 2층

건축사 승효상,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

— 비엔날레재단 "타 장르를 아우르는 넓은 식견과 경험, 철학적 사유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 등으로 적임"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승효상 건축사(건축사무소 이로재)가 선임됐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3월 19일 용봉동 비엔날레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승효상 건축사를 내년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했으며, 올해 5월 외국인 보조 감독을 선임해 협업형태로 진행토록 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총감독 선임에 대해 "역대 디자인 총감독의 전공 분야가 산업디자인이었던 점을 감안, 타 장르로 영역을 넓히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특히 승효상 건축사의 경우 건축뿐만 아니라 미술, 디자인에 대한 넓은 식견과 실무 경험, 철학적 사유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다양한 전시기획 경험 등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적임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승효상 건축사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 건축계의 거장 김수근 문화에서 15년간 일하다 1989년 자기만의 건축을 하기 위해 건축사무소 이로재를 열고, 현재까지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 건축 작품에는 수졸당, 수백당, 웰컴시티, 파주 출판도시, 베이징 장성호텔, 아부다비 문화지구 전시관, 팔라룸푸르 복합빌딩 등이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건축사로서는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관하는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같은 해 미국건축가협회로부터 명예 펠로 자격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2008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기획 등 국내외 크고 작은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다.

광주 야구경기장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발족

— 위원장 조용준 교수, 위원 신정철 광주건축사회 회장 등

광주 시민의 염원인, 야구경기장 건립 추진을 위해 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3월 17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야구장건립 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식을 갖고 동 구장 재추진과 개방형 구장 건설, 무등야구장 개축 관련하여 의견 수렴 방식 및 향후 일정에 관해 협의 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6월 말까지 야구장 건립 계획을 결정하고 연말 안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야구장 건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지 않도록 회의내용과 추진과정을 광주시홈페이지에 날마다 공개하기로 했다.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용준 조선대 건축학부 교수가 선임됐으며 부위원장에 김응식 조선대 체육학과 교수, 위원에 신정철 광주건축사회 회장, 김성숙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오미덕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4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 등의 고소득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소비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건축사를 비롯하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의원 등 보건업 및 학원,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 기타중증 사업자 약 23만명이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세금징수 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천득업 교수,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지회장 취임



지난 4월 2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사옥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천득업 전남대 교수가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천득업 지회장은 전남대에서 건축공학사, 공학석사 학위를, 고려대 대학원에서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영산강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하였고, 전남도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설계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지회장선출과 함께 감사 2인에 신태양 호남대 교수, 김민호 조선대 교수가 선출됐으며, 총무이사에 이재홍 순천대 교수, 재무이사에 한승훈 전남대 교수가 선출됐다.

한편, 정기총회와 함께 열린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시설 계획 방안 연구', '사회통합형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공유공간 계획기법 연구' 등 총 5개의 논문이 발표 됐으며, 한승훈 교수의 'U-HOUSING 서비스 기술(Service Technologies for the Ubiquitous Housing)'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2010 상반기 좋은 예감 '정(情)담회' 개최

— 4월부터 6월까지 매일 두 번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전북지역 건축계는 '건축인,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3차에 걸쳐 2010 상반기 좋은 예감 정(情)담회를 개최한다.

전주 한옥마을 내 최명희 문학관에서 열리는 정(情)담회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일 두 번째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다.

1차 정담회는 4월 8일, 진정 전북대 건축학과 교수의 '학계에서 바라보는 건축인의 역할이란' 주제와 나훈균 플러스 디앤씨 대표의 '건설산업에서 바라보는 건축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개최됐으며, 2차 정담회는 5월 13일 송기항 전주시 건설교통국장의 '행정에서 바라보는 건축인의 역할'과 이길환 (주)길 건축사무소 대표의 '지역에서 건축하기란'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3차 정담회는 김성주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역정치가 도시건축에 미치는 영향과 이성업 전북건축사회 회장의 '우리 지역건축계의 실정'이란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2010 상반기 좋은 예감 정(情)담회는 건축계와 관련 없는 일반인도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는 063-288-9380(감미현 건축사)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1기 건축사 Academy 수강생 모집'

—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선착순 모집

광주건축사회는 건축사 회원의 윤리 의식 함양과 회원 간의 유대강화, 건축홍보와 실천방안, 운영기법 및 잠재능력 개발 등, 건축사로서의 발전방향 도모를 위해 제1기 건축사 아카데미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 지원자격 : 건축사
- 교육일시 : 추후공지
- 교육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5층)
- 모집인원 : 약간명 (선착순 모집)
- 강 사 : 대학 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별첨)
- 접수기간 : 2010년 4월 13일~4월 27일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Fax
- 주소 :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Fax : 062)528-0026
- 교육비 : 추후공지
- 기타사항
- 교육이수자는 회원 인종교육시간으로 인정
- 각종 추천 및 위원 위촉에 이수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 문의전화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062)521-0025~6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신정철 전남회장 김강수 전북회장 이성엽
편집인: 박승근
편집위원: 김승국
이수미, 서재형, 정태호,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김삼현, 김기범, 정영범, 정관성,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원부터
▶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문헌위 | 전라남도 교육청 시설과 5만원

건축문화 사랑

표/지/설/명

문화의 꽃
추운 겨울을 보낸 매화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의 건축, 도시 그리고 삶 속에서
'건축문화사랑'이
문화의 꽃을 피워 나가길 기대한다.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 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gjkt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연락처를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영문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 파일로 제출.

전라남도 건축사회 제44회 정기총회



전라남도건축사회는 3월 16일(화)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승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서 김강수 전남건축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작년에 이어 건축사 위상을 높

이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그와 관련한 자문위원을 구성중이다."며 '본협회와 전북, 광주건축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전남회원의 목소리와 위치를 공고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청 행복마을과 신명수 과장은 축사를 통해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의 우수성을 국내외 널리 홍보하여 산업화와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옥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 10월 중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전남건축사들과 전남도정이 공조를 통한 상생의 발전을 하자."고 밝혔다.

이어 건축사 권익보호와 건축사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대상자에게 수여되는 감사패 수여식에서 전남 순천시 허가민원과 이재순 주사보와 담양군 민원과 김태중 주사보가 수상했다. 주요업무 보고와 감사보고 후, 진행된 부의안건 의결 사항에서 총 5건의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한편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에서 이사에 김기호, 이해구 건축사가 선출 됐으며, 감사에 김복한 건축사, 대의원에 김정, 이환영, 탁기봉, 조도인, 박중호 건축사가 선출 되어 향후 2년간 협회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전라북도 건축사회 제44회 정기총회



전라북도건축사회가 3월 19일(금) 전주 코아 리베라 호텔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열고 '2009년도 수지 결산(안) 심의 승인의 건',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등 총 3개의 부의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번 총회에 대한건축사협회 이창울 부회장과 유남구 한국건축가협회 전북지회장, 이배형 전라

북도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 등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업 전북건축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변화를 두려워하여 시대의 흐름에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고, 힘을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진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속에서 배우야 한다"며 "변화하는 건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건축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혜택 증진에 건축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진 회장은 이창울 대한건축사회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전북지부 회원 및 대다수 회원들의 성원으로 추진한 건축사단체 통합을 위한 정관개정안이 안타깝게도 지난 대한건축사회 제44회 정기총회에서 부결 됐다"며 "대의는 인정하지만 변화를 수용하기가 아직은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동안 건축사법 전면 개정을 비롯하여 발주제도 및 건축물 신고제도개선 등 새로운 법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는데 힘써, 건축사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로패 수여 및 신입회원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감사보고 후, 진행된 부의안건 의결사항에서 상정된 3개의 안이 원안대로 승인 됐으며, 특히 2010년 사업계획에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최와 각종 기념행사, 건축인 협의회 운영, 국제교류사업, 건축 설계전문 교육과정 운영,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행으로 인한 증액된 예산안 승인이 큰 주목을 받았다.

한편 전라북도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안에서 감사에 이진희 건축사가 만장일치로 재선출 됐으며, 이사와 대의원은 역대회장단과 협의하여 회장이 선출하도록 의결, 익산과 남원 지역 회장은 지역건축사회에서 위임키로 했다.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 윤춘주 변호사 위촉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3월 22일(월) 광주건축사회 회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법무법인 서석의 윤춘주 변호사를 법률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번 법률자문변호사 위촉은 지난해 제1회 건축법제위원회에서, 법원 및 검찰 관련 고충처리는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키로 하고, 관계 공무원과의 분쟁 등은 본 협회 법제위원회 질의응답을 받아

대응키로 함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한 자문변호사를 선임키로 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윤춘주 변호사는 "건축사 회원들의 분쟁 발생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1년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변호사 직무를 맡게 된 윤춘주 변호사는, 사법시험 41회로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국내외 각종 단체의 법률자문과 함께 전라남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광주 KBS1 라디오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 건축사회 이창울 회원,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으로 선임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이창울 회원이 우리지역에서 처음으로 대한건축사협회 비상근부회장에 선임됐다.

지난 3월 16일(화), 대한건축사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본협회 제 3회 이사회의를 열고, 이창울 회원을 부회장에 대한 선임 부의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창울 회원은 (주)GA건축사사무소 대표로서, 광주건축사회 제9대 회장을 역임한 후, 본협회 법제 담당 이사의 직무를 활발히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는 건축문화신문과 친환경 건축물 담당 부회장 직무를 맡게 됐다.

곽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광주 건축계 동정

- *전입**
 - 박상군 건축사 (지안 건축사사무소, 전남 화순군 / 광주 동구 계림동)
- *변경(소재지변경)**
 - 박상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혜성 에이전시 / 광주 동구 동명동)
- *부고**
 - 이수철 건축사 (주)이수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3월 20일(토)
 - 김기준 건축사 (주)맥스우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3월 25일(목)

광주시청 인사발령

홍기남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기획조정본부장 → 도시건축국 국장
위길환 도시건축국 국장 →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 기획조정본부장

전남 건축계 동정

- *변경(소재지변경)**
 - 박민영 건축사 (성화 건축사사무소 / 순천시 연향동)

전북 건축계 동정

- *전출**
 - 정용재 건축사 (한 건축사사무소, 전북 익산 / 태진 건축사사무소, 전남 해남)
- *변경(소재지변경)**
 - 홍인표 건축사 (홍인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77-3)
 - 김대운 건축사 (린 건축사사무소 / 익산시 남중동 76-21)
 - 김정수 건축사 (건영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54-1)
 - 박주성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선일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94-10)

*변경(상호변경)

- 김용운 건축사 (고궁 건축사사무소 / 금강 건축사사무소)

*부고

- 송택신 건축사 (유)송택신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03월 06일(토)
- 서영상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사진건축 / 장모상 - 03월 26일(금)

전북 동호회 소식



골프동호회
등산동호회
축구동호회

전북 건축사 골프동호회는 1986년 군산건축사회 박용서 건축사가 전국건축사골프대회에 참석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골프를 즐기는 회원이 증가되면서 1990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월례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 회원이 늘어나 건축사골프동호회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1993년 이후에는 회원수가 34명 정도로 증가 되었고, 2010년 현재 43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연 8회 내지 10회 정도 개최되는 월례대회 때는 5~6개 팀으로 성원이 될 정도로 활성화 되었다. 대회 후에는 시상도 하며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축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써 골프동호회는 명실 공히 전북건축사회를 대표하는 동호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 할 계획이다.

건축사들의 업무상 특성을 비추어 볼 때, 상대가 없는 자기 자신과의 운동인 골프는 건축사와 잘 어울리는 운동이라 생각되며 심신수련 및 수양활동으로 적격이라 많은 회원들께 추천하고 싶다. 건축사 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와 더불어 전북건축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골프동호회에 많은 참여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우섭 건축사 (전북 골프동호회 회장)

수필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보람!

신영미
광주시 지원동 지역아동센터장

"원장선생님 선물이에요..."
"오빠랑 세뱃돈 모아서 샀어요." 수줍게 웃으며 1학년 은혜가 쇼퍼백 하나를 건넨다. 원장선생님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샀다며...

며칠 후 은혜엄마가 센터에 오셔서 말한다. "은민(은혜오빠)이 원장선생님을 많이 따르나 봐요..." 퇴근하고 집에 가 쇼퍼백이 있어서 물으니 원장선생님께 드릴 선물이냐고 했으며, "아직까지 자기 돈으로 남에게 뭔가를 사본 적이 없던 아이가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선 걸 보니..."라며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거리신다.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부부나 한 부모 가정,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본의 아니게 홀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을 책임지는 곳이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어려서부터 접경 많아져나오지만 아직까지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공공시설은 충분하지 않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생겨난 것이 지역아동센터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생활공간으로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먹거리를 제공하여 가정의 보육기능을 보완해 준다. 더불어 발달과정에 적합한 학습-한자, 영어, 종이접기, 독서, 음악활동, 문화체험, 캠프-을 제공한다.

아이들을 돌보며 느끼는 것은, 아이들은 엄마와 같은 품을 원하며 또래끼리의 공동체 생활을 원하며, 성장에 필요한 먹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은민이가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는 2008년 5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실질적인 가장인 엄마의 수입으로는 학원은 커

녕 제대로 먹고 입히기도 힘들어 초등학교에 다니는 3남매 모두를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게 된 것이다. 그 중 맏이인 은민이는 학습능력이 뛰어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어 성격이 내성적이며 반항심이 있는 아이였다.

어느 날부터 센터에 오는 시간이 늦고 결석이 잦아져 상담을 해보니 학교 친구들이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집 아이들만 다니는 곳이라 해서 센터에 들어오기가 창피하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거부감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따로 불러 이야기했다. "어쩔 수 없는 현재의 가정 상황을 이해하고, 친구들의 말 중 새겨들지 않아도 되는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고 어디서든 주어진 임무에 열심히 할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성공한 뒤에는 과거에 대해 묻지 않으니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하라"고 말했다.

그 후, 표현은 안하지만 동생들도 잘 챙겨주고 선생님들의 말씀에도 잘 따라주며 생활을 잘 해왔던 학생이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사회복지사와 공익요원, 보건복지부 일자리창출 파견교사,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 모든 선생님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한다.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간식과 밥을 챙겨 주어야하고, 행정업무를 봐야하는...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걸똥던 아이들이 의젓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나의 역할에 보람을 느낀다. 오늘도 학교수업이 끝나가는 시간, 삼삼오오 짝지은 아이들이 달려온다. 마치 집에 오는 듯 편안하게 달려오는 아이들이 맞이하며 센터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법/령/소/식

국토해양부 최근 공포 법령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33여개의 법령을, 15여개의 훈령, 예규, 고시를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등의 이유로 새롭게 공포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 최근에 공포한 법령과 고시 등의 법령명을 우리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의 최근공포법령을 참조하면 된다.

● 최근공포법령

- 「주택법」(2010. 4. 5 시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30 시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3.30 시행)
- 「주차장법」(2010. 3.22 시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0. 3.22 시행)
- 「도로법」(2010. 9.23 시행, 3.23 공포)

1. 개정내용 설명

● 주택법 개정이유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과 관광특구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관광특구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의 요건을 개선함.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와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며, 관리주체의 사용자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관리사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차장법 개정내용

법 문장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법으로 되어 있지 않음에 따른 개정임

● 최근공포 훈령, 예규, 고시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2010. 3.17 시행)

광주광역시 최근 공포 조례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2010. 3.1 시행

1. 개정이유

• 조례에서 위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에 대한 평균층수 산정방법을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규정하고 도시계획위원 자격을 관련분야를 확대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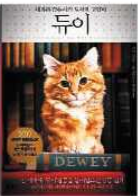
2. 주요내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방법(제3조 의2)
 - 평균층수 : 단지내 아파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
 - 평균층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정



세계를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듀이'

박신남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유림 대표



평소 반려동물(伴侶動物)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지인으로 부터 중, 고등학교생 권장 도서인 '듀이'를 소개받아 읽어 보았다.

『20여년전 어느 추운 겨울 날 미국 아이오와 주 스펜서 시 근처 공공도서관 도서납환에 동상에 걸린 새끼 고양이 버려졌다.』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희광이 사라지고 황량해진 이 마을에서는 도서관사서 바키마이런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과 이별하고 삶에 지쳐 외롭게 지내오던 중 고양이에게 듀이 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생활한다.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 도서관 고양이로 자라게 된 듀이는 스펜서 공공도서관 방문객들의 친구이자 주요 관심대상이 되었다. 성품 좋은 그의 등장으로 인해 죽는 듯이 고요했던 이 마을 도서관에 이 움직임이 찾아와 동시에 행복한 마음으로 오래 머물게 되면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게 된다.

버거운 삶의 무게와 상처를 듀이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건 바키마에게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성실했으나 자존심 강한 실업자에게도, 도서관을 전혀 찾지 않고 무관심했던 마을 주민에게도...』

듀이는 마을의 일원으로서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끌어 들어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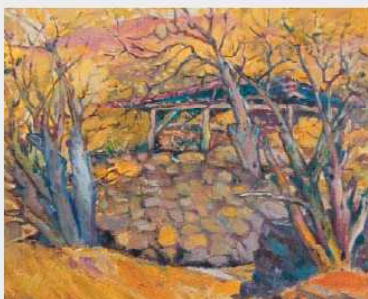
도서관 역시 지역 사회의 삶에 완전히 통합되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자 모임의 장소, 휴식 및 여가의 장소로 그 지역에서 구심점이 되었다.

또한, 듀이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듀이는 2006년 11월 위종양으로 안락사하여 19년간의 생을 마감 했는데, 전 세계 250여개의 언론매체에 실렸고 듀이를 위한 추모 행렬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 마리의 작은 고양이를 순수하게 사랑 했던 마음이 수 백 수 천 배의 사랑으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 같다. 작고 소중한 사랑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 사랑이 찾아 왔을 때는, 긍정의 활력소와 엔돌핀이 생겨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인생이 되는 것 같다.

건축사 Gallery



산동의 봄

봄은 지리산 자락 저멀리 노고단에서부터 산등성이를 돌아 이곳 산동계곡을 은은한 햇노란 색으로 물들여 놓았네 산수유 가지에 노오란 봄이 열렸네.

그림: 김유식 건축사

Photo



봄 꽃 축제

"봄 꽃이 만개하기 시작한다. 겨우내 매달라 있는 듯 보이는 나무가 봄이 되면 어김없이 화려하고 풍성한 꽃을 뽐낸다... 우리에게도 나무와 같은 저력이 심연 깊숙이 내재되어 있음을 믿는다"

(2010. 3. 28일 출사)
광양 매실마을
촬영: 정태호 건축사 기자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무등의 비로와
1등으로
세계를
이끌어!



알고 계셨나요?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은 우리고장 광주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광주전자주식회사는 1989년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설립된 광주지역 독립법인입니다. 2조원 규모의 호남제일기업으로써 고용인력증대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있으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활동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환경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광주전자는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보호 한다는 신념아래 전사녹색경영을 통한 자연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하남산업단지 내 삼성광주전자



저렴한 유지비+인테리어까지 생각한 1:1 맞춤바람은
오직 **내고장 광주기업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 뿐입니다.



우리지역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 전문점

(유)삼성무동특판 062)365-6900 (주)센도리 062)268-5811 광주지역 (주)한국엠이씨 062)521-2341~2 (주)에이앤비 062)603-4787 (유)허우젠공조시스템 062)511-0006	(유)에이원공조시스템 062)681-8504 (주)오성에어텍 062)971-7742 (주)삼성공조시스템 062)952-0048 그린공조시스템 062)385-7300	순천 동부이앤에스(주) 061)722-0850 순천 태에이앤스주식회사 061)721-4798 전남지역 여수 삼성냉열시스템(주) 061)653-2025 광양 (주)디에스시스템 061)795-6631 목포 (주)한빛시스템 061)247-9500	전남지역 나주 (주)하이옥스 061)336-0071~2 진주 디지털공조 063)277-7999 전북지역 전주 (유)삼성에스에이비공조 063)226-0419 전주 (유)일신공영 063)212-9131 전주 (유)정연엔지니어링 063)244-7777	군산 (유)삼성특판공조 063)451-7800 익산 (유)한국설비 063)832-7152 익산 두일공조시스템(주) 063)841-5800 익산 삼성동성에어컨(주) 063)855-8700
---	--	--	---	--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획득
기술혁신 중소기업 (INNO-BIZ) 인증
벤처기업 등록

www.bs-base.co.kr

탄탄하고 경제적인 기초공사 - 반석기초이앤씨(주)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팽이기초공법 (6연식형 / 현장타설형)

팽이기초공법
6연식



동신고 체육관

팽이기초공법
현장타설형



잠신 중학교



군산인력개발원



전남대 학군단



105 포병대대



서정동 주민센터

마이크로파일 공법



장성 문화예술회관



연천초

그라우팅 공법



반석기초이앤씨(주) 대표이사 문형록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87-1 아이비타워 108호 TEL. 031)577-1673 FAX. 031) 577-1674